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VOL.12

2017 JANUARY

발간년월 2017년 1월(통권 제1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Tel 0517974343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최지현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21cjoshua@kmi.re.kr/051-797-4793)

유엔총회는 2016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유엔을 비롯한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해양 활동을 평가하고 해양법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는 이 결의에서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평가되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KMI가 개도국들의 유엔해양법 능력 배양을 위해 유엔 해양법국(UN DOALOS)과 함께 실시한 ‘해양과학조사 능력배양 프로그램’과 ‘여수 국제아카데미’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 등 3가지 KMI 활동에 대해 2차례 언급되며 그에 대해 높은 평가와 치하를 표시했다.

동 결의안에서 여타 연구기관의 활동이 언급된 것은 로즈 아카데미(Rhodes Academy)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 에게(Aegean)해양·해사법연구소, 아이슬란드 해양법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등 세계 정상급 해양법연구소와 매년 막대한 금액을 해양관련 프로그램에 쏟아 붓고 있는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 등이며 그나마 1차례 언급된 것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KMI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매우 이례적으로 KMI 뿐 아니라 한국 해양외교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 능력배양 프로그램’은 유엔 해양법국이 유네스코 국가간해양학위원회와 함께 개도국의 해양 과학조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1회 프로그램을 2015년 부산에서 KMI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여수 국제아카데미’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 여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KMI는 유엔 이 외에도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전 세계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 정책, 해양 환경, 해사 안전, 수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 분야 1년 중요 업적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

■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는 1년간 유엔을 중심으로 해양 분야의 활동 및 해양법 분야에서의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결의문 채택

- 제71차 유엔총회는 2016년 12월 23일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문서 번호 A/RES/71/257)를 채택하였음
- 이 유엔총회 결의는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7장 및 35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채택되는 결의임
- 이 국제문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의 전체 기관인 총회가 한 해 동안 해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분쟁 및 이슈, 그리고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총 결산하고 이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에 검토한 17가지 해양 관련 이슈

- | | |
|------------------------|--------------------------------|
| 1) 협약의 이행 | 10) 해양생물다양성 |
| 2) 능력배양 | 11) 해양과학 |
| 3) 당사국 총회 | 12) 해양환경 평가 및 글로벌 보고를 위한 정규 절차 |
| 4) 분쟁의 평화적 해결 | 13) 지역 협력 |
| 5) 심해저 | 14) 비공식 협의 절차 |
| 6) 심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 | 15) 조정과 협력 |
| 7) 대륙붕과 CLCS(대륙붕한계위원회) | 16) 유엔 해양법국의 활동 |
| 8) 해양안보 및 안전과 기국의 이행 | 17) 제72차 회기 유엔총회 |
| 9)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 |

그림 1. 유엔총회 회의장



자료 : UN 공식 웹사이트

■ 1984 유엔해양법협약이 유엔총회 결의에서 채택된 이후 1994년 협약이 발효되자 유엔은 해양 및 해양법 분야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를 해마다 채택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로 1996년까지(제51차 회기) 해양법 관련 총회 결의가 성안되었으며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 이후 발효 전후 시기까지의 회원국들을 상대로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등 협약 자체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1997년(제52차 회기)부터는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라는 제목의 결의가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논의 주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

■ 유엔총회 결의는 주요 해양 관련 평가와 유엔 사무국(해양법국, DOALOS)이 차년도에 관장해야 할 업무를 위임하는 기능 담당

- 유엔해양법협약 상 주요 기관인 ITLOS (국제해양법재판소), CLCS (대륙붕한계위원회), ISA (국제심해저기구)의 주요 활동, IMO가 관련된 해사 안전 및 해양 환경 관련 활동, 새로운 해양법의 발전 및 변화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
- 유엔을 통하여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해양 및 해양법 협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바를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라 해당 회기에 관련 해양 분야 기관들의 회기를 확정하고(CLCS 등), 비공식협의절차(Informal Consultative Process)와 같은 유엔- 사무국 내 해양법국 -이 주관해야 하는 국제회의 논의 주제 및 일정을 확정함

* 유엔총회 결의 A/RES/54/33에 의하여 구성된 비공식협의절차는 정부 대표 이외 민간의 대표들까지 참여하는 공개적인 형태의 협의 절차로 정부 + 민간이 해양 분야의 긴급 주제에 대해서 법, 정책, 과학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국제회의임

*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양 및 해양법 관련 국제기관들이 상호 업무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해양 이슈와 새로운 논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

■ [협약의 이행]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협정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조

-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반성을 강조하고 협약의 가입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가입을 촉구함
- 유엔해양법협약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유보, 선언 등의 형식으로 협약 적용에 대한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점과 반드시 당사국들이 자신의 국내법을 협약에 부합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능력배양] 해양 분야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능력배양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1년 간의 능력배양 활동의 열거하면서 격려

- 리오+20 정상회의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인용하면서 개발도상국이 바다와 해양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과 소도서국, 아프리카 연안국들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능력배양 활동 중에서 교육 활동 (로즈 하계 아카데미, 패로 제도의 대륙붕 아카데미, ITLOS의 하계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또한 해양 과학 조사와 기술 분야에서 개도국을 위한 능력배양 활동은 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국제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강조

-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상설 분쟁해결기관인 ITLOS의 역할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ICJ가 해양 분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경의를 표함
- 협약 제287조는 협약이 규정한 4개의 분쟁해결기관(ITLOS, ICJ, 중재재판, 특별중재재판) 중 하나를 사전에 미리 지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지정 선택권을 국가들이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함

■ [심해저] 심해저 개발 관련 규정 마련에 힘쓰고 있는 ISA의 역할을 평가하고 심해저 개발에 있어서 해양 환경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 ISA가 심해저의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28개의 작업계획을 승인하였고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그리고 고코발트 망간각의 개발을 위한 15년 계약을 25개 개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함
- 제143조와 제145조에 의해 ISA에 위임된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이 ISA 법률기술위원회 신탁기금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기여를 장려함

■ [심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심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현재 역할 수행 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기능 촉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의 협조를 촉구

- ISA에 할당된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ISA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함
- ITLOS 전문 및 상급 직원 모집 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ITLOS 규칙과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TLOS 직원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함

■ [대륙붕과 대륙붕한계위원회] 대륙붕의 외측 한계 설정을 위한 당사국들의 활발한 활동 참여를 환영, CLCS의 적극적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 현재까지 대륙붕 한계 설정 신청 중 24건에 대해서 CLCS가 권고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권고의 요약문을 공개한 것을 높이 평가함
-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건의 심사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CLCS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사국 및 유엔 해양법국이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함

■ [해양안보 및 안전과 기국의 이행] 항해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조약의 가입을 촉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을 격려

- 해적에 대한 공동 대처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운산업 자체적으로 국가와 함께 해양안전과 안보 강화를 위한 훈련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안보 및 안전을 위한 조치가 선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양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양자적 다자적 수준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존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행에 협력할 것을 촉구

-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14' 이행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함
-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및 이로 인하여 파급되는 여러 효과를 지적하고 사전주의적 접근과 생태계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총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과 BBNJ 회의에 대한 관심을 지적

- 유엔총회 결의 A/RES/69/292에 따라서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채택을 위한 준비 1차 및 2차 회의가 2016년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7년에도 2차례 열릴 것을 확인함

* 3차회의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4차회의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하기로 이번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

-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그 이행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해양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이니셔티브 현재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에 대한 새로운 국제 조약 체결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의 준비모임이 진행되고 있음

- **[해양과학] 국가들이 개별적 또는 협력을 통해 해양 및 심해에 대한 이해와 해양과학조사 확대를 강조**
 - 해양과학조사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유엔 해양법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함
 -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지원하는 해양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개데이터를 통한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시함
- **[해양환경 평가 및 글로벌 보고를 위한 정규절차] 정책 결정을 위해서 과학적 기반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 해양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과학적 평가 강화를 확인**
 - 1주기 (2010-2014) '해양환경 평가 및 글로벌 보고를 위한 정규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자들의 노고를 치하함
 - 2주기 (2016-2020) 정규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결정하고 전문가 그룹의 참여 중요성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이 정규절차 2주기 작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함
- **[지역 협력] 다양한 지역에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협력을 확인**
 -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을 촉진, 해양안전 및 안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등과 관련한 문제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확인함
- **[비공식 협의 절차] 17회 비공식 협의 절차 결과를 환영, 18회 비공식 협의 절차 개최 날짜를 2017년 5월 15일~19일로 결정**
 - 비공식 협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를 상기시키고, 특히 비공식 협의 절차 준비 회의 전과 그 기간 중 공동 의장들에게 이러한 취지의 지침을 제공할 것을 국가들과 정부 간 기구 및 프로그램에 권장함
- **[유엔 해양법국의 활동] 유엔해양법국이 준비한 해양 및 해양법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와 해양법국의 다른 활동들에 대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표시**

KMI의 역할 및 업적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 공식 평가

■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 KMI의 역할이 언급되었으며 “Korea Maritime Institute”가 2번 언급

- 제2장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분야 제44항에서 KMI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제11장 해양과학(Marine Science) 분야에서 유엔 사무국 해양법국 및 IOC와 KMI가 공동으로 개최한 태평양 지역 개도국 대상으로 해양 과학 조사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였음
- 제44항은 KMI가 ITLOS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과 여수 국제아카데미 개최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그 업적을 평가한 것이 주요한 내용임
- 제248항은 2015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IOC와 유엔 해양법국과 KMI가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과 해양 과학 조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임

KMI의 역할을 평가한 유엔총회 결의의 내용 – 결의 제44항 및 제248항

[원문]

44. Further recognizes with appreciation the important contribution of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to the trust fund to support the internship programmes at the Tribunal since 2011 and its continued efforts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capacity-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Yeo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programme;

248. Welcomes, the launch by the Division and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the programme entitled “Promote and facilitate the conduc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th the aim of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build their capacities in the field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the first course under the programme was develop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and delivered in Busan, Republic of Korea, from 7 to 11 December 2015;

[번역]

제44항 더 나아가 2011년 이후로 KMI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하여 신탁기금을 지원한 것을 평가하며 또한 여수 국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에 애쓴 것을 평가하고 인정한다.

제248항 유엔 해양법국과 KMI가 국가간해양학위원회(IOC)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및 특별히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이 해양과학조사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증진 및 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정을 태평양국가연합 연구기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2015년 12월 7일부터 11일 사이 개최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주목한다.

■ KMI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항은 해양 분야 능력배양 사업이며 그 중에서도 교육 관련 사업에 좋은 평가

- 유엔총회 결의 제44항은 KMI가 ITLOS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 내용과 여수 국제아카데미 개최를 지원한 것을 두고 이러한 활동이 전 세계 해양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하여 그 업적을 평가함
- 국가간해양학위원회는 개발도상국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KMI가 이를 지원한 것을 높이 평가함

KMI 국제 협력 사업 추진 체계 점검 및 ODA사업과 연계 모색

■ KMI는 해양·수산 분야 능력배양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 수행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KMI는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전 세계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 정책, 해양 환경, 해사 안전, 수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시행 중임
- 국제 협력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국제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함

표 1. KMI가 추진한 유엔 및 유엔 관련 기관 협력 사업

기관	협력 내용	기간
UN ESCAP	아태지역 관련 협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1998 ~ 계속
YSLME (GEF/UNDP)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2009 ~ 계속
FAO	세계 연안 및 도서국가 대상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2011 ~ 계속
ITLOS	평화적 분쟁해결 증진을 위한 컨퍼런스 순회 개최	2014 ~ 계속
	개도국 국민의 ITLOS 인턴십 지원	2015 ~ 계속
UN 해양법국	해양 분야 개도국의 해양과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지역별 순회 개최)	2015 ~ 계속
FAO	세계 연안 및 도서국가 대상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2011 ~ 계속
	북서태평양 주변국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국제 세미나	2016
UNDP	유엔 조달물자 수송서비스 낙찰과정 및 유엔 조달시장 진출 방안 기업 설명회 개최	2016

■ 해양수산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이 ODA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필요

- 유엔총회에서 평가받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능력배양 사업은 우리나라 ODA 평가지표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ODA 지원 사업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 ODA 사업은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따라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해양 분야 전문지식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개발도상국의 해양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단기적인 형태의 교육 사업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분야 무상원조 집행전략을 개별국가 중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촉구됨

* 2017년 계획된 우리나라 ODA 총 규모는 약 2조 6,359억원 규모로 총 42개 기관에서 1,243개 사업을 추진

** 2017년 해양수산부의 ODA 계획에 따르면 규모는 47.7억원 정도로 연안 개도국의 해양수산인프라 구축 및 해양수산기술 지원에 배정되어 있음. 양자·무상 형태의 사업으로 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기술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정책 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KMI동향분석

구분	주요 내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8

URL : <http://www.kmi.re.kr/web/main/web/trebook/list.do?rbsIdx=273&page=2>